

	제목	동방 정교회(1274~1700)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호서대학교 출판부
	발행일	2015. 10. 30.
	저자	에리히 브리너 황훈식 옮김
	출판도시	천안
	페이지수	232
	ISBN 또는 ISSN	978-8998741129

내용 요약

이 책은 13세기 말부터 17세기 말까지의 정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 시기의 정교회는 제4차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라틴인의 통치를 받았으며, 오스만의 팽창으로 인한 위협에 시달렸고, 마침내 오스만 제국에 의해 정복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정교회의 제2의 신학적, 영적, 문화적 전성기였다고 평가된다. 저자는 니케아공회의 황제 미카엘 8세 팔라이올로고스가 비잔틴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탈환하고 라틴제국을 종식시킨 1261년을 비잔틴 역사와 13세기 후반의 교회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시대분기점이라고 주장한다. 이후 비잔틴제국은 오스만의 팽창으로 인한 압력에 시달렸고 제국 내부의 문제로 진통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과 교회문화의 전성기였다고 한다. 이 시기에 많은 수도원들이 세워졌고, 교회예술분야의 최고작품들이 탄생했으며, 수도원 중심의 사회봉사가 활발했다고 한다. 1453년 오스만제국의 콘스탄티노플 함락으로 비잔틴제국은 역사에서 퇴장한다. 오스만제국은 이슬람의 관용 범위 내에서 비무슬림들에게 어느 정도의 차별과 제한은 있지만 세금납부를 조건으로 종교적 자유와 자율권을 보장했다. 오스만제국에서 비무슬림들은 종교를 기준으로 밀레트에 편입되었다. 저자는 오스만제국의 통치 이후로 신학역사가 단절되었으며 후기 비잔틴시대의 신학적, 영적, 문화적 전성기가 종결되었다고 본다. 저자는 모스크바 대공국 등의 피렌체 연합 거부와 러시아정교회의 자치선언을 15세기 전반 교회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한다. 또한 저자는 15세기 중반-16세기 중반, 정교회에 대한 로마가톨릭교회의 입장 변화를 고찰하고 종교개혁 운동가들의 정교회에 대한 언급과 견해를 소개한다.